

## 조지아에서의 비전을 나눕니다.

오랜만에 선교지 소식을 전합니다. 작년 말 잠시 교회와 자녀들이 있는 미국에 다녀왔지만 아이들의 코로나 감염으로, 미처 다 뵙지 못하고 훌쩍 떠나 오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나마 전합니다.

이곳 조지아는 유난히 길었던 겨울 탓으로 예년 보다 훨씬 늦은 봄과 함께, 갑자기 찾아온 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되어 36 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은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현지인들은 그 부족함으로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결핍과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시며 자신의 것으로 느끼시는 그 주님을 닮아 가길 원합니다. 관심과 기도로 그리고 귀한 물질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는 이곳에서 “함께 그리고 깊게” 나누는 사랑으로 그 은혜를 잘 흘려 보내겠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시작 한 Daycare center 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곳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와서, 간식을 먹고 숙제를 하며 부모님들의 픽업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이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내용으로 크래프트를 하고, 영어프로그램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에피소드를 전해드리면... 창세기 천지창조를 위한 크래프트를 하는 날, 한 학생에게 창세기



1 장을 읽어 보라고 했는데, 흠칫 눈을 가리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동안 성경은 사제들만 읽어야 했던 관습으로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거의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럼 읽을 수 있지, 읽어 보세요“하는 말에 머뭇거리다 읽어 내려가는 모습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의 말씀처럼 ... 주님,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 Audio/Video 영어 학습 교재를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훈련 받은 ETI 프로그램은 과정 속에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연령층, 각기 다른 영어 수준, 그리고 일정치 않는 출석 상황으로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할지 난감하지만, 그럼에도 현지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과의 소중한 접촉점이라 여기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은 이번



여름 방학 캠프에 초대 되어 성경 속 인물 요셉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하며 말씀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청소년들의 성경캠프



**현지** 침례교회의 청년들이 주말 일들을 모두 접고 2박 3일간 합숙하며 요나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도 하루 함께 참여 했습니다. 장차 조지아에 복음을 확장해 갈 청년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한껏 기대를 해봅니다. 2박 3일의 합숙에도 미처 다 마치지 못해서, 그 다음주에 저희 집을 오픈하였고, 다 마친 후 활짝 웃는 모습이 참 대견합니다. 싱그러운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성화되어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K-POP의 열풍이 조지아에도 불고 있어 많은 청년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준비기간동안 한국어 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이렇게 잘 사용되어져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학생 한 명과 1대 1 강의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알려져 최근에는 3명의 고등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온라인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어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온라인으로만 하는 한계가 있지만, 교육장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과의 접촉점이 만들어지고 함께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장 되어지는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여름방학 캠프의 시작



6월말 10살에서 14살까지의 청소년 캠프 현장

**팬**데믹으로 지난 2년동안 하지 못했던 여름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은 참가비가 없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 지원에 힘입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경험한 교회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중에 대학을 갈 때쯤 수도 트빌리시로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월 첫 주에 있을 청년들의 캠프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곧 세상에 진출하는 길목에 있는 청년들 이기에 한시라도 빨리 주님의 말씀이 심령속에 뿌리내려야 할 것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 같은 선교 단체 (GP) 선교사 가정과 동역



조지아 수도인 트빌리시에서 1시간 30분 떨어진 곳에 센타 건축이 진행중입니다. 마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의 진행을 저희와 함께 하여 아래의 사역을 위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지하와 1층만이라도 마무리하여 사역을 부분적으로 시작하고자, 힘을 모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 이곳에서 펼쳐질 주요 사역은

1. 예배당을 구축하고 현지 목회자를 청빙하여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2. 컴퓨터 교실을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활용과 관심을 심어주어, 진학과 취업의 기회를 부여해 주고 싶습니다.
3. 한국어 교실을 개설하여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하고, 이 현장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과의 접촉점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을 말씀의 장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 영어 교실을 통해 실력 향상을 돕고 매일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맛볼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 문화교실을 통해 마을 주민들과 사랑을 나누며 점진적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음식 만들기, 공예품 만들기, 머리 잘라 주기, 환자 돌봄 등등)
6. 도서관의 공간을 마련해서 방과 후 학생들이 성경 도서와 만화 등을 통해 말씀의 궁금증을 갖으며 알아가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7. 애프터 스쿨을 통해 방과 후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케어하며, 숙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사역장의 완성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1. 복음으로 바로 세워진 현지 지도자와 현지 교회를 통해 복음전파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확산되어 가길 기도합니다.
2. 섬기고 있는 현지 교회와 함께 교회가 없는 시골에 복음을 전파할 장을 마련하며 그 역할을 감당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매년 열리고 있는 청소년/청년들의 캠프를 통해 전해진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되고 목표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4. 자립하고 자족하고 자전할 수 있는 현지 교회를 돕기 위하여 BAM 의 역할을 펼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 함께 할 선교 사역장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6.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 후원방법:

(PAYABLE TO) GPUSA

(MEMO) GE1/김현수.고봉주

SEND CHECK TO ADDRESS: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T:714.774.9191